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6년 4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JDC, '제주지역 화장품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한국에너지공단, 노감협의회 구축...공공기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터닝포인트
- KEIT, 작년 한해 R&D 자금 14억원 부정 사용 방지... 부패방지 최우수기관 선정
- 삼성-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 美 BMS, 의사한테 식사비 등 제공 중단...반부패방지법으로 처벌받은 후 초강력 조치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한국가스기술공사] KGT동반성장

3. 청렴 위반 사례

- 간부급 공무원의 산하재단 법인카드 사적 사용
- 퇴직 및 전출자를 재직자로 위조하여 급여 횡령

4. 지식마당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JDC, '제주지역 화장품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가 운영하는 JDC 공항 면세점은 17일 '제주지역 화장품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JDC는 중소기업에 입점기회를 제공하고 상품을 공동 기획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홍보채널을 통한 마케팅 지원과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는 '코스메나뚜르'가 서울소재의 SM시내 면세점에 입점한 바 있다.



'코스메나뚜르'는 2016년 2월 JDC가 출범한 제주지역 중소기업 화장품 업체 15개로 구성된 유통·판매 브랜드이다.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69340>

2. 한국에너지공단, 노감협의체 구축...공공기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터닝포인트

한국에너지공단 감사(상임감사 임명배)와 노동조합(노조위원장 김성우)은 10일 '한국에너지공단 노조-감사 협력'을 선언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선도 역할 수행을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로서는 처음이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협력모델과 관련, 1년여의 연구와 외부자문 등을 거쳐 노조와 감사의 협력방안을 모색한 결과의 산물이며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번 노감 협의체 구성에 앞서 14개 노감협력 이행 실천방안을 316개 전 공공기관으로 전파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별 공공기관이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동시에 대국민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상임감사는 또 “반부패·청렴은 규정과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의 의지와 문화의 문제이므로, 노조와 감사의 협력을 통해 반부패·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이와 함께 내부 구성원의 근무만족도를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 정착되도록 해 국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10001000>

3. KEIT, 작년 한해 R&D 자금 14억 원 부정 사용 방지... 부패방지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청렴'과 '성과 확산'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KEIT는 청렴이 연구지원 기관의 기본이라는 인식 아래 실시간 연구비 관리 시스템(RCMS)을 구축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R&D 자금의 오용과 부정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보상금도 이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포상금은 1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 제도 운용을 통해 지난해에만 14억3000만원의 부정 사용을 방지했다. 이런 관리 시스템을 인정받아 국민권의 위원회가 실시한 '2015년도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5/2016031502134.html

최근 동향 및 소식

4. 삼성-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삼성이 9개 계열사와 1, 2차 협력사가 참여하는 '2016년 삼성-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삼성은 거래관행 개선 방안 일환으로 하도급법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의 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타 계열사에 조기 확산, 정착해 모범적인 법 준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삼성 1차 협력사들은 '3대 실천방안' 채택을 통해 ▲2차 협력사와의 협약 체결 ▲대금지급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운영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과 부정 방지 등을 약속했다.

한편 삼성은 협약을 통해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와 4대 실천사항을 도입·운영하고 ▲협력사 대금지급을 현금성 결제비율 100%로 10일 이내 지급하는 등 하도급 대금지급 조건을 개선했으며 ▲원자재가 인상 시 적극적인 단가 조정도 실시해 왔다.

삼성은 1차 협력사 평가에 2차 협력사 대금지급 조건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실적 등을 반영하여 2차 협력사까지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를 위한 사이버 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59>

5. 美 BMS, 의사한테 식사비 등 제공 중단...반부패방지법으로 처벌받은 후 초강력 조치

15일(현지시각) 피어스파마아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BMS는 중국 의사들에게 식사비, 강연료, 자문료, 학회 후원 등 현금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는 직원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해고 또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BMS 중국법인은 지난해 10월 해외반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1470만달러(176억원)의 벌금을 냈다. 미국은 해외에서 부당한 영업활동을 펼쳐 미국 내 사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BMS 중국법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식사, 여행, 선물, 학회 후원 등을 의사들에게 제공해왔다. 이런 활동으로 BMS가 얻은 의약품 판매 수익은 1100만달러(130억원)에 달했다.

BMS는 지난해 말 중국 영업사원과 관리직 90여명을 해고하고 직원들의 지출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BMS 관계자는 "중국 내 영업 활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의사에 대한 금품과 현금성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겠다"고 말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6/2016031602446.html

윤리경영 실천 사례

[한국가스기술공사] KGT동반성장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천연가스 도입에서부터 공급에 이르는 전체 설비에 대한 정비와 엔지니어링, 그리고 기술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천연가스 설비전문 기술 회사이다. 평택, 인천, 통영, 삼척의 4개 LNG생산기지 와 전국 4200여km에 이르는 천연가스 주배관망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LNG저장탱크·생산기지 설계 등 엔지니어링 사업과, 차세대 친환경 기술 개발 등 에너지 설비 전문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생발전과 사회 공헌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 힘쓰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 내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청렴·윤리경영 활동 및 반부패 척결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서 ‘정도경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체와의 상생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KGT 동반성장 전략체계 및 2015년 실적]

한국가스기술공사는 “함께 걷는 상생대로, 펼쳐지는 꿈의 대로!” 라는 동반성장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하고, 동반성장 문화정착, 중소기업 기술력제고 지원,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지원, 성과공유제 확산이라는 4대 전략방향에 공사업무 특성(에너지 전문기업), 중소기업 니즈, 정부정책 부응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CEO의 의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 산업생태계 구축, 모니터링 및 피드백의 4대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 지원, 성과공유제 확산,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등의 각 동반성장 영역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5년 KGT 동반성장 추진체계]

2015년의 각 분야 별 성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 지원> 영역에서는 협력기업에 대한 현장직무교육을 통하여 협력기업의 교육훈련비를 약 7.5억을 절감하였으며, 중소기업과의 공동 R&D 진행을 통하여 약 8.6억 원의 매출을 증대하고, 1.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계량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협력기업의 직무역량 확보를 위하여 품질경영력 향상과정을 운영하고, 공사가 운영 중인 사이버 직무과정 45개 과정을 협력기업에 개방하고, 정비기술분야 공개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따라 직원과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비계량적인 부분에서도 높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성과공유제 확산> 영역에서는 성과공유과제 유형을 다변화하고, 성과공유전문가 양성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하여 성과공유과제를 초과 달성하였다. 특히, 전사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하여 성과공유과제 우수사례를 전사에 전파하고, 내부경영평가 지표에 성과공유제 확산 노력 지표를 추가하여 전사 차원의 성과공유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윤리경영 실천 사례

<공정거래질서 확립> 영역에서는 협력업체에 대한 결제 조건을 선진화하여 현금결제비율과 지급기일준수율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또한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정경쟁 및 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계약을 전자입찰로 진행하였으며,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하위 단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5건, 28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우수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중소기업 제품구매 확대> 영역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여성, 중증장애인 기업의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하여 연간 상시적으로 '구매 목표 설정 및 협조 요청 → 구매실적 모니터링 → 중간점검 → 지사 실태 점검'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제품구매율을 97.82%까지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2016년 동반성장 전략체계]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16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상호 신뢰 형성'을 통하여 '대-중소기업 Win-Win'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대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동반성장 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

- 동반성장 문화정착 기반과제 및 3대 주요 과제 (기술력 제고지원, 판로지원, 성과공유 확산) 추진
- 협력기업 가스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 성과공유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공유과제 발굴 확대 및 성과 창출
-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영업)지원으로 자생력 제고

동반성장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과 공기업 중심에서 대기업의 기술력과 해외 네트워크, 중소기업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융복합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www.kogas-tech.co.kr

청렴 위반 사례

1 간부급 공무원의 산하재단 법인카드 사적 사용

모 중앙행정기관 간부공무원인 A부이사관은 2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산하단체인 甲재단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수시로 제공받아 수백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골프 접대를 받음.

시사점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거나 골프접대를 받은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 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2 퇴직 및 전출자를 재직자로 위조하여 급여 횡령

모 지방자치단체의 급여담당 공무원이 지방인사시스템에서 퇴직자 5명을 재직자로 조작하고, 급여대상자에 포함하여 지방재정시스템의 급여 지출 시 재직자 100명의 급여는 정상 지급하고 조작한 퇴직자 5명의 급여는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횡령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반복되는 고질적인 비리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중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지방인사 시스템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오류의 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하여 비리 사례 및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75개의 Rule을 통하여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경보를 발생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인이 확인할 수 있는 등의 기능을 제공함

지식마당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모든 기관 및 법인의 관심사 중의 하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가 아닌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적시에 위험을 탐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언급되며 많은 기관 및 법인에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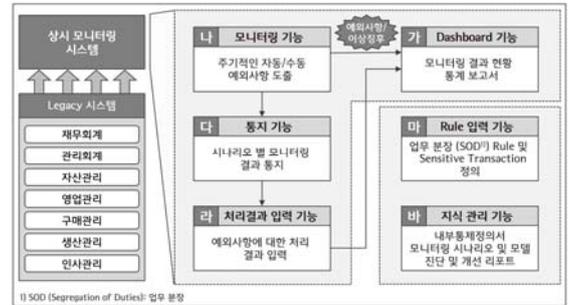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회사에서 업무 처리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 데이터(예를 들면 ERP내 Transaction Data)를 활용하여 사전에 미리 정의된 위험 시나리오에 따라 이상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해 주는 시스템
- 2) 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재 회사에 위험 수준에 어느 정도이고 어느 영역에 고위험이 존재하는지를 표시해줌으로써 회사 내에 공존하는 다양한 위험들을 관리
- 3) 이상 징후를 조기에 식별해 내고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부정 징후를 수집하고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

이러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고위험 영역에 대해 내부 통제 위반사항, 부정·오류의 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 및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가) Dashboard 기능

- ① 모니터링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대한 진행 경과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화면상에 display 해주는 기능
- ② 업무영역별·기간별·조직별 모니터링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계보고서 기능과 다양한 기준에 의한 그래픽 기능(Graph, 분포표)을 지원
- ③ 모니터링 항목별 위험 평가뿐 아니라, 업무영역별·조직별 위험평가 기능도 지원

(나) 모니터링 기능

- ① 예외거래 식별을 위한 거래 원천 데이터 입수 및 관리
- ② 모니터링 항목별로 설계된 Rule에 따라, 특이거래내역, 지연처리내역 등 예외사항을 실시간으로 추출

(다) 통지 기능

- ① 예외사항 발생 시, 사내 e메일 등을 통해 예외 데이터를 발생시킨 사람 또는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지
- ② 각 모니터링 항목별로 세부 예외 데이터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화면 상 예외거래 display

(라) 처리결과 입력 기능

- 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예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입력 및 저장 기능을 지원
- ② 이슈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전결권에 따라 승인 및 반려가 가능하도록 구현됨
- ③ 저장된 진단사례 및 원인, 처리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유형화되고 지식 DB로 관리됨

지식마당

(마) Rule 입력 기능

- ① 시스템 사용자 및 사용자 권한, Menu, 각종 Code 및 문서 양식 등 시스템 관리 기능 제공
- ② 모니터링 항목 및 업무분장 및 예외데이터 추출 Rule 변경 사항에 대한 관리기능을 통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③ 필요 시 종합감사시스템, 전사 Portal, ERP 등 관련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관리

(바) 지식 관리 기능

- ① 우수조치 사례 등 조직 내 지식 공유 및 내부 통제 정의서, 모니터링 시나리오 정의서 등 주요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이해 관계자 별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위원회

- 전사 차원에서 각 프로세스 상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전략 위험과 주요 운용 위험 관리에 집중할 수 있음

2) CFO

- 규칙과 시스템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 활동 강화, 주요 위험 Point에 근거한 통제활동의 선택과 집중, 업무 규칙의 전사적 준수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음

3) 내부 감사인

- 부정 징후에 대한 조기경보, 제한된 자원의 효과적 활용, 특정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적 감사활동이 가능함

4) 현업

- 업무 수행상의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이 가능하며, Control Self-Assessment의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함

5) 외부 감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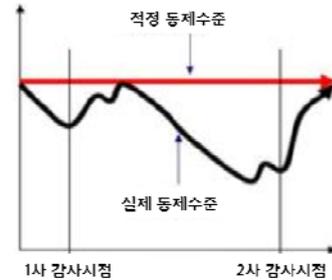
- Anti-Fraud Program 및 내부 통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확신을 얻는 것이 가능함

6) 공통

- 통제우회에 대한 즉각적인 통지, 데이터 수집 및 추측업무 시간 절감, 전수 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제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영역이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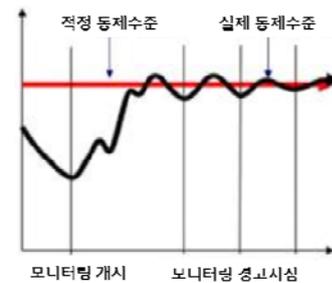
또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지속적인 내부 통제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거래 형태 변경에 대한 조기 인지와 적시의 통제 개선을 통해 통제수준을 적정 기대수준으로 유지할 있는 장점이 있다.

<내부감사를 통한 통제 개선>



상시 모니터링 구축 후 통제수준 변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통제 개선>



내부감사 관점에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지원을 통해 전통적인 부정적발 위주의 내부감사를 벗어나 부정 및 오류 징후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프로세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컨설팅 감사 수행이 가능하다.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

<http://www.pwc.com/kr/ko/publications.html>

공정경쟁연합회 컴플라이언스 CCP 교재

Quiz

1. 다음 중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②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③ 공무원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요청한 금품 등
 - ④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2. 다음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반부패 각료회의’의 선언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① 뇌물방지협약 4단계 이행평가의 공식적 개시
 - ② 뇌물방지협약 비 참여국의 참여 금지 선언
 - ③ 해외뇌물 및 부패 척결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 공조 필요성 인식
 - ④ 해외뇌물 사건의 적극적인 적발, 법 집행 및 기업의 책임 강조

3. 전사 프로세스 중 위험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위반사항, 부정 및 오류의 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① 경영관리 시스템	② 감사 정보 시스템
③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④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

4. 다음 중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법률은 무엇일까요?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② 셔먼법(SAA)
 - ③ 사베인스 옥슬리법(Sox)
 - ④ 해외부패방지법(FCPA)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④ 공유가치창출(CSV) 모델
2. 답 ③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답 ① 재무보고 (내부통제의 5가지 요소: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활동)
4. 답 ④ 소공인진흥협회 (경제 5단체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관련 행사

1. 권익위, 26일 제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금번 기념식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관련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여했다.

성영훈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권익위는 청렴생태계 조성, 국민체감형 민원 해결, 국민소통 내실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Total&method=searchDetailViewInc&menuId=010103&boardNum=52592>

2. 이창재 법무부차관, OECD '반부패 각료회의' 참석

이창재 법무부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반부패 각료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법무부가 17일 밝혔다.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의 해외뇌물·부패사건 근절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또 주요국 반부패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확립하는데도 노력하기로 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7/0200000000AKR20160317069400004.HTML?input=1195m>

3. 롱스 앤 그레이, 中 비즈니스 관련 반부패 세미나 개최

외국법자문소 롱스 앤 그레이(Ropes & Gray)가 오는 17일 사내변호사 단체인 IHCF와 공동으로 '중국 비즈니스 관련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정부의 반부패 관련 조사 관할권 확대에 따른 영향 ▲최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반부패 규제 현황 ▲최근 중국 관련 미국 증권위원회 및 법무부 규제 동향 ▲최근 글로벌 반부패 추세 및 관련 케이스 등을 짚어본다.

롱스 앤 그레이는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기업 내부 조사 및 반부패 규제와 관련해 깊은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194124>